

이것이 權心이다

향사 이래 600여명 최다 참석 시조님 깨우시고 천등산도 놀랐다



2019년도 시조 태사공 및 낭중공 추향제가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시조 묘역에서 권해욱 회장을 비롯하여 족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되었다. 이번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는 경향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향사(享祀) 이래 가장 많은 족친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족친들의 대거 참석은 예전에 없었던 일로 100만 안동권문의 권심(權心)이 이십전심으로 통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은 송조이념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날 시조 추향제 및 낭중공 향사 제관에 대한 분정은 아침 8시 30분부터 권정창 제례위원장의 주재 하에 시작되었다. 시조 추향제 초헌관에는 권태강(權泰康) 대중회 고문이자 전 검교공과회장으로 분정하였고, 아헌관에는 학림공 후손 권오정(權五正) 대중회 이사, 종헌관에는 권점하(權点夏) 족친으로 각각 분정하였다. 낭중공 향사 초헌관에는 권세묵(權世穆), 아헌관에는 권정택(權貞澤) 대중회 부회장, 종헌관에는 권정길(權正吉) 족친으로 각각 분정하였다. 분정례를 하는 동안 부산종친회(회장 권성용)를 비롯하여 마창진종친회(회장 권태영), 대구종친회(회장 권오섭), 충북음성 금왕종친회, 산청종친회 등은 대형버스(5대)를 대절하여 참석했고, 25인승 1대와 140여대의 승용차

가 속속들이 도착하여 주차장과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웠다. 분정례가 끝날 무렵 능곡재사 앞마당은 모든 제관과 참제자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족친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김광림 국회의원이 안동권문의 시조 태사공 추향제야말로 바로 진정한 안동의 모습이라며 정말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인사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그간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추향제에 참석하여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되어 정말 반갑다. 오늘 날씨가 좋을까 몹시 걱정했는데 시조 태사공 덕분에 날씨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하며 여러 족친들도 늘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족친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새벽만 같아도 비가 장대처럼 쏟아져 과연 시조묘역에서 추향제를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하늘은 맑끔하게 개어 있었다. 송조이념으로 하나가 된 전국 100만 족친의 지극 정성이 시조 태사공은 물론 하늘까지 감동시켜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참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오전 10시 제관들과 참제자들은 능곡재사 앞 도로에 도열한 후 능곡회 회원들이 나르는 제수(祭需)를 앞세우고 시조 묘소로 향했다. 시조 묘소로 향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참제자들의 행렬은 가히 장관이었다. 묘소에 도착한 후 제수가 진설되자 권춘탁(權春卓) 찬자의 흥기에 따라



엄숙하고 질서정연하게 1시간에 걸쳐 추향제는 봉행되었다. 추향제를 봉행하는 동안 시조 묘역 바로 위 하늘에서는 드론으로 추향제의 모든 과정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드론 촬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향제가 끝나자 부산종친회 회원과 마창진종친회 회원 등 참배객들은 시조 묘역을 배경으로 추향제 참제를 기념하고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기념촬영을 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부산종친회 부녀회원들은 예년처럼 분홍색 한복을 입고 참석하여 많은 족친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조 추향제를 마친 후 참제원들은 오전 11시 낭중공 단소로 이동하여 찬자 권득원(權得源)의 흥기에 맞춰 제례순에 따라 엄숙하게 낭중공 추향제를 12시까지 봉행하였다.

낭중공 추향제를 마친 참제원들은 시조 태사공 신도비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는 평창공(平昌公)과 학림공(鶴林公) 사적비(事蹟碑) 제막식에 참석했다. 제막식은 권오상 대중회 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권옹주 능동성역화 추진위원은 제막식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했다. 권해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임에도 시조와 낭중공 추향제에 경향 각지에서 600여명의 족친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오늘 역사적인 사적비 제막식을 거행하게 된 선조는 평창공과 학림공이다. 평창공은 45백

년 동안 실천되었던 시조 묘역을 지극 정성으로 찾은 공이 있는 선조이고, 학림공은 풍산유씨들과의 산소 분쟁에서 기발한 기지로 산소를 수호한 공이 있는 선조이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공은 영원히 기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료된다. 이런 의미에서 두 분에 대한 사적비 건립은 사실 만시지탄이지만 여러분의 뜻이 모아져서 오늘 역사적인 제막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조 묘역 성역화를 위해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조 묘역 성역화 사업은 무엇보다 권옹렬 고문의 1억 기탁과 권오록 고문의 1억 기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큰 박수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제막식은 먼저 평창공 사적비에서부터 시작하여 학림공 사적비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막식 커팅은 권해욱 회장, 권영익 수석 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오을 전 국회의원, 권오신 편집위원장,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영호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권정창 제례위원장, 권태강 시조 수임, 권세묵 낭중공 수임, 권옹주 제례위원, 권오정 학림공 후손 등이 참여하였다. 제막식이 끝나자 족친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평창공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 거행



평창공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이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 봉행 후 거행되었다.

사적비 건립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제2차 상임위원회(5.9)에서 평창공 학림공 사적비 건립에 대해 의결하였다.

권옹렬 고문이 7월 4일 성역화 사업비로 1억을 기탁하자 8월 21일에 사적비 건

립 계약을 체결하였다.

9월 4일에는 권오록 고문이 1억을 기증하였다. 제3차 상임위원회(9.30)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영성)를 구성하였다. 사적비 건립 공사를 착공(10.1)한 후 추진위원회에서 비문을 최종 심의(10.17)하였다. 11월 16일 추향제 봉행 후 드디어 역사적인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12月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임원 선임

<부회장>

권정호(서울청장년회 회장) 권순용(서울청장년회 수석부회장)
권오강(동북아제인 대표)

<이사>

부 회 장

권길상(전 부총재) 1,000,000
권홍사((주)반도건설 회장) 1,000,000
권기식(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1,000,000
권오강(동북아제인 대표) 1,000,000

중무위원

권혁태(영주) 200,000 권영위(부산) 200,000
권종선(용인) 200,000 권경탁(서울) 200,000
권광훈(청주) 200,000 권박원(대전) 400,000
권오돈(서울) 200,000 권동원(대전) 600,000

이사

권병후(수원) 300,000 권보근(김포) 300,000
권춘규(용인) 300,000 권경호(대구) 300,000
권영석(합천) 300,000

총 : 7,7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시조 태사공 추향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조 태사공, 2세 낭중공 추향제와 평창공과 학림공 사적비 제막식에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어 주신 족친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秋享祭 獻誠金							
權泰康(始祖所 首任)	200만원	權世穆(郎中公 首任)	100만원	權雄烈 大宗會 顧問	100만원		
參議公宗中(대전)	30만원	安東권사모	30만원	陰城郡宗親會	30만원	靖簡公宗會	30만원
乙未秋享正常化委員會 25만원(安東 權宙衍)							昌寧郡宗親會 30만원
安東宗親會	20만원	僕射公派宗會	20만원	檢校公派宗會	20만원	別將公派宗會	20만원
牧使公宗中(서울)	20만원	陵谷會	20만원	江陵宗親會	20만원	大邱宗親會	20만원
安東權氏本鄉元老會	20만원	花城尉尙儉系宗中(陰城)	20만원	權盛一(大邱)	20만원		
大邱個人택시宗親會	10만원	梅軒公宗會	10만원	釜山壯年會	10만원	釜山青年會	10만원
司成公宗會	10만원	서울靑壯年會	10만원	永川靑年會	10만원	蔚川靑壯年會	10만원
判書公系司猛公門中	10만원	判書公系石南門中	10만원	判書公系西谷門中	10만원	權慶煥(永川)	10만원
權大煥(서울)	10만원	權得源(大邱)	10만원	權晚集(尙州)	10만원	權奉煥(大邱)	10만원
權升煥(安東)	10만원	權寧成(永川)	10만원	權寧華(安東)	10만원	權五甲(榮州)	10만원
權五淳(英陽)	10만원	權五正(禮泉)	10만원	權五柱(寶淵)	10만원	權玉順(釜山)	10만원
權正吉(奉化)	10만원	權正澤(尙州)	10만원	權貞澤(高陽)	10만원	權定鎬(盈德)	10만원
權春源(道村)	10만원	權春卓(榮州)	10만원	權忠和(光州)	10만원	權泰均(咸昌)	10만원
權泰亨(馬昌)	10만원	權赫度(水原)	10만원	權赫度(禮泉)	10만원	權寧東(安東)	10만원
權甲鉉(榮州)	5만원	權光勳(淸州)	5만원	權揆鎭(山淸)	5만원	權福順(泗川)	5만원
權五薰(大邱)	5만원	權容周(高陽)	5만원	權容柱(安東)	5만원	權宙衍(安東)	5만원
權泰煥(楊州)	5만원	權赫朝(忠州)	5만원	權赫周(서울)	5만원	權煥壽(安東)	3만원
합계						15,130,000원	